

디지털 영상 연구 기반 활용’ 활성화 산·학·연 맞손

농촌진흥청, ‘디지털 표현체 민관 협의체’ 발족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학회 등 참여

농촌진흥청이 디지털 농업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표현체 연구 기반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표현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농진청은 1일 디지털 표현체 민관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연구기관과 대학, 산업체, 학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표현체는 온도·습도·물 공급량·토양 성분 등 작물 생육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종자·잎·줄기 등의 관찰 가능한 특성을 말한다. 최근 작물 생육 예측과 병해충 관리,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팜 운영 등에서 표현체 데이

터 활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고가 장비와 정밀 분석기술, 전문인력 등 연구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협의체에는 농진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

원자력연구원(KAERI), 대학·산업체·한국영양식물학회 등이 참여한다.

참여기관들은 ▲표현체 연구 기반 공동 활용 ▲데이터 표준화 및 공동 생산 ▲기관별 특화기술 개발 ▲전문인력·기술 교류 ▲현장 기술 수요 발굴 및 실증 등을 추진한다.

농진청은 표현체 빅데이터 생산과 표준화, 공동연구 수요 발굴을 맡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특화 데이터 생산과 공동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대학은 기술 고도화와 전문인력 양성, 산업체는 현장 적용과 기술 수요 발굴, 학회는 기관 간 기술·데이터 연계와 국제협력력을 지원한다.

농진청과 KIST, KAERI를 중심으로 전문가 교류회도 열어 분야별 연구 성과와 연구 기반 운영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권수진 농진청 디지털육종지원과장은 “디지털 표현체 기술은 다양한 작물과 농업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는 핵심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며 “연구 기반과 전문 역량을 연계해 데이터와 기술이 산업과 농업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미국·유럽 외교 무대 흔든 ‘K-씨푸드’

해수부-aT, 한국 수산물 홍보 마케팅 전개



▲행사장에서 한국 쿠킹쇼를 진행하는 셰프와 참관객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국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수산식품을 알리며 미주·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해수부와 aT는 9월 29일 미국 워싱턴 D.C.와 10월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외공관 국경일 기념행사와 연계해 현지 외교·정책 관계자 등 1천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수산식품 홍보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9월 29일 미국 워싱턴 D.C.

국립조상화미술관에서 열린 국경일 행사에는 미 의회 관계자와 외교사절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전복·넙치 물회와 넙치 타르타르 등 현지 취향을 반영한 ‘전통주를 곁들인 K-씨푸드 안주’를 선보이고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 홍보관도 운영했다.

10월 1일 프랑스 파리 주 OECD대표부 국경일 리셉션에서는 38개국 대사단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조류를

비롯한 한국 수산식품을 소개했다.

현지 셰프의 쿠킹쇼를 통해 미역국, 훈제굴 카나페, 감태주먹밥 등을 선보였으며 해조류 가공식품도 전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OECD 주재 외교 관계자는 다시마와 미역, 훈제굴 등이 카나페나 수프로 고급스럽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보이며 유럽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평가했다.

aT는 이번 행사에서 확인된 글로벌 주요 인사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미주·유럽 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고 현지 바이어 연계와 유통망 시범 판매 등 후속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미국과 유럽의 외교 무대에서 각국 리더들에게 K-씨푸드의 가치를 알릴 수 있었다”며 “현지 소비자의 취향과 식문화에 맞춘 프리미엄 한국 수산식품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미나리 기능성 성분 지키려면 비료 ‘적정량’ 사용해야

권장 비료량 줄 때 기능 성분 풍부

미나리의 기능성 성분을 유지하려면 재배 과정에서 비료를 권장량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미나리를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에서 적정량의 비료 사용이 미나리의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클로로필 등 기능성 성분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나리의 표준 비료 사용량은 10아르(1000㎡)당 질소 30.5kg, 인산 14.7kg, 칼리 20kg이다. 연구진은 순천·나주·청도 등 전국 미나리 주산지 50곳에서 미나리와 토양을 채취해 기능성 성분 함량과 토양 상태를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토양에 비료 성분인 염류가 과도하게 쌓인 재배지에서 생산된 미나리일수록 카로티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 클로로필 등의 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에 염류가 지나치게 축적되면 미나리 뿌리의 수분 흡수를 방해하고 광합성에도 영향을 미쳐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농촌진흥청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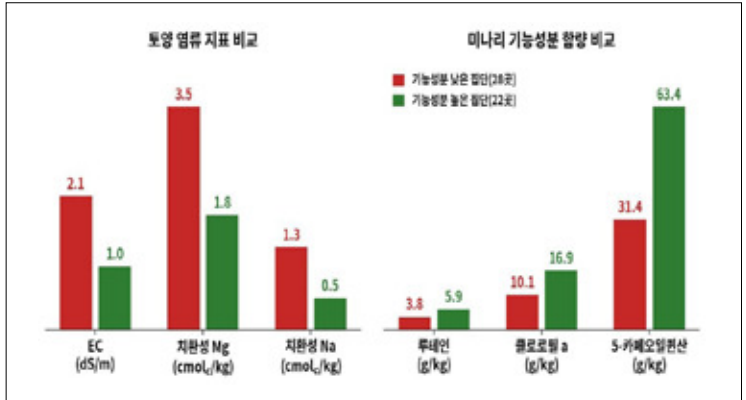
질소·인산·칼리 비료의 사용량을 달리한 재배시험에서도 비료를 필요 이상으로 사용할수록 카로티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칼리 비료에서 감소 폭이 뚜렷했다.

칼리 비료를 적정량의 2배 사용했을 때는 미나리의 베타카로틴 함량이 3.06mg/100g에서 2.41mg/100g으로 약 21% 감소했고, 클로로필 a 함량도 20.0mg/100g에서 13.8mg/100g으로 약 31% 줄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the Science of Food and Agriculture’에 게재됐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미나리 재배지의 흙 상태(화학성) 및 기능성분 분석 결과

농진원·진도군, 우수 종자 보급·스마트농업 확산 협력

스마트농업 기술 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과 진도군(군수 이재각)이 우수 종자 보급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농진원은 28일 진도군청에서 진도군과 우수 종자 보급 및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수 종자의 품질 관리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기술을 공유하는 등 양 기관의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스마트농업 기술 협력 및 표준화 모델의 현장 확산 신신품종 종자의 안정적 공급과 이용 확대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확산을 위한 기술 이전·사업화 지원 △시설·기재재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 종자 확보와 스마트농업 기술의 현장 적용을 통해 진도 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석형 농진원장은 “진도군 농

업 현장에 필요한 우수 종자와 스마트농업 기술이 실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과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왼쪽부터)이재각진도군수,이석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출: 출처(URL) 확인 발: 발신자 확인

택배가 출발했다면 스미싱 예방법 **출발**을 기억하세요